

1970-80년대 민중의 글쓰기에 강요된 '부끄러움'의 정치학

김경민*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가난의 비정상화와 부끄러움의 강요
- III.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문학과 강요된 문학성
- IV. 나오며

【국문초록】

어떤 사회에서든 지배 집단의 불안을 숨기고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기 위해 부끄러움의 대상을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 규범으로 삼는 부끄러움의 메커니즘은 작동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이 부끄러움의 대상을 보면 그 사회의 숨겨진 욕망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70-80년대 민중들의 글쓰기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감정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권력화된 지배적 가치와 이념을 파악해보았다. 당시 민중들의 글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난을 개인의 무능과 나태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생존경쟁 구도를 정당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지배담론은 가난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한 것이 부끄러움의 한 양상이라면, 예술성을 갖춘 문학적 글쓰기를 좋은 글쓰기의 표본이라 규정했던 문학장의 지배담론은 전문적인 문학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해 미학성이 낮은 글을 열등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게 한 것이 또 다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민중들을 비정상 혹은 열등한 존재로 규정해 자신들의 이익적 가치를 공고하게 하려는 당시 지배집단의 민낯을 보여주는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중요한 상징이라는 점에서 당시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징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주제어: 자전적 글쓰기, 민중, 수기, 부끄러움, 가난, 문학(성)

I. 들어가며

자전적 글쓰기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인 만큼, 자전적 글쓰기에 성찰과 반성의 이야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¹⁾ 상당수의 자전적 글쓰기가 성장소설과 유사한 이야기구조로 구성되었다는 점 또한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거쳐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로 발전해가는 성장소설의 플롯은 자전적 글쓰기에서도 유사하게 구현된다. 흔히 성장소설 개념을 설명할 때 ‘성장’은 기성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나 질서와의 타협, 조화, 화해 등의 의미로 해석된다.

앞의 네 유형에서 인간의 성장은 완료된 세계, 기본적으로 극도로 견고한 세계가 움직이지 않는 배경으로 주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 세계에 변화가 발생한다 해도, 그것은 주변적인 것으로 기본 원칙을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다. 인간은 한 시대의 경계 내에서 성장했고, 발전했고, 변화했다. 현존 성 속에 실재하는 굳건한 이 세계는 인간에게 그에 대한 일정 정도의 적응력, 삶의 현존하는 법칙에 대한 인식과 복종을 요구했다.²⁾

1) 이은미,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 자전적 쓰기의 활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 8(4), 2014.8, p.495. 이 글 외에도 자전적 글쓰기가 고백과 반성의 이야기이며, 자아성찰의 방법이자 결과물이라는 분석은 자전적 글쓰기를 분석한 상당수의 논의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2) Mikhail Bakhtin,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2001.(김희숙·박종소 옮김, 『말

이렇듯 기성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이념에 대한 복종과 적응의 과정이 성장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인공의 반성 역시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가 속한 사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듯, 내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반성의 행위 또한 그가 속한 사회가 마련해놓은 다양한 규범과 관습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 역시 자전적 글쓰기의 성격을 띤 민중들의 수기에 드러나는 반성적 태도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부끄러움의 감정으로 표현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970-80년대에 생산된 민중들의 자전적 수기에 드러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의 배경과 의미를 통해 당시 사회가 그들에게 강요한 지배적 가치와 관습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1970-80년대 민중들의 수기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긴 하나, 노동자들의 글쓰기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동운동이라는 사회적 담론에 기반해 접근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1970-80년대에 생산된 민중들의 자전적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가운데 주목해볼만한 것으로는 김성환과 천정환, 신병현의 논의를 꼽을 수 있다. 김성환은 「1970년대 논픽션과 소설의 관계 양상 연구」, 「1970년대 노동수기와 노동의 의미」 등의 여러 논문에서 1970년대에 발표된 노동수기에 주목하여 그간 문학사에서 소외된 장르였던 논픽션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있다. 비록 서술 기법상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노동수기는 노동자가 서술의 주체였으며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활동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 현장을 재현한 소설과 비교해, 노동수기야말로 당대의 노동자들

이 지향하는 가치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1970년대의 현실을 재현하는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다. 천정환은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에서 서발턴과 글쓰기의 관계를 재검토하여 민중문학의 역사적 위상을 재고한 바 있다. 이 글에서 그는 1970-80년대 민중의 일기나 수기와 같은 자생적 글쓰기를 통해 근대문학 및 문학사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그는 기존의 근대문학사가 엘리트주의/대중주의의 모순에 의해 구축되어 왔다고 비판하며, 민중이 자기재현을 함으로써 비로소 민주주의가 성취되었다고 평가한다. 신병현은 『70년대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들과 노동자들의 글쓰기』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한 수기, 일기 등 자전적 텍스트들의 담론을 분석해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의 흔적을 살핀다. 그는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에서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착색된 근대화론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발견해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언어 사용방식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긴장관계 등을 함께 분석하였다.³⁾

이 논의들을 비롯해 1970-80년대 민중의 글쓰기를 소재로 한 연구의 대부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민중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였으며, 그간 대상화되고 객체화되었던 민중을 공적 담론 내부로 끌어들이 주체로 인정받게끔

3) 본문에서 언급한 글 외에, 김성수, 『문학운동과 논픽션 문학』, 『1980년대 문학』, 깊은샘, 2003; 김준,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일상생활과 의식』, 윤희동 외, 『근대를 다시 읽는다』, 역사비평사, 2006; 홍성식, 『민중문학의 주체와 노동자 수기』, 『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8; 홍성식, 『서발턴의 생활글과 민족문학론의 재구성』, 『한국문예비평연구』 3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2;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 이매진, 2006; 유경순, 『구로동맹파업과 노동자 자기역사쓰기』, 『역사연구』 18, 2008;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상허학보』 37집, 2013; 김경민, 『1970-80년대 서발턴의 자전적 글쓰기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7권 3호, 2016 등이 있다.

했다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의 대부분이 1970-80년대 노동자들의 수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지점이다. 이 시기를 논픽션의 시대로 부르는 것은 노동자 수기라는 특정 직업군의 사람들이 쓴 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노동자들 못지않게 농민들의 글쓰기도 이 시기에 활발히 이루어졌다.⁴⁾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 분류되기 모호한 이들, 가령 식모나 녀마주이, 구두담이 등이 쓴 수기 역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노동자수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상당수는 사회과학적 접근법, 즉 당시의 노동운동이나 민중담론의 맥락 속에서 이념 실천의 결과물로 노동자수기를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텍스트 자체가 아니라 외부의 시선으로, 그리고 선형적으로 구성된 담론을 전제로 분석하다 보면 그러한 시선과 담론의 경계를 벗어나는 내용들은 배제되고 간과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텍스트의 의미는 제한적으로만 규정되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직업군이나 계급에 제한되지 않은, 그야말로 다양한 민중‘들’의 자전적 글쓰기를 살펴보고자 한다.⁵⁾ 글쓴이의 사회적 정체성

4) 물론 『새마을』과 같이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잡지에 발표된 것이 대부분인 탓에 농민들의 자전적 글쓰기는 곧 국가의 지배담론에 의해 기획, 제작된 것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새마을』은 1974년 5월부터 문화공보부에서 제작해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과 도시에 2부씩 배포되었던 잡지로, 이전까지 주변화되고 배제되었던 농민이 사회지도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중요한 국민의 일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논설, 수필, 에세이 등을 비롯해 새마을운동 성공사례, 지역 탐방, 새마을운동 관련 인물소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시 대표적인 지식인과 연예인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달의 새마을지도자’라는 코너를 통해 1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가 소개되었는데, 이전까지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않았던 농민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나이, 경력, 주요업적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윤희동 외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p.491)

5) ‘민중’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방대하고 복잡한 하나의 연구주제를 이룰 만큼

을 전제로 한 접근이 아닌, 글에 나타난 정황에만 기반해 이들 글쓰기를 하나로 꿰 수 있는 공통의 이야기문법과 특징을 파악해보는데 집중할 것이다. 즉, 이들의 수기 대부분이 성장소설의 구조로 이루어진 점을 전제로, 1970-80년대에 성행했던 민중들의 자전적 글쓰기에 강제된 반성과 성찰의 논리를 분석해 당시 사회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모든 창작과정이 그러하듯, 글쓰기 과정 역시 형식과 내용 모두에 글쓴이의 의식/무의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에, 이어지는 II장과 III장에서는 각각 수기의 내용과 형식의 차원에서 당시 민중들에게 요구되었던 부끄러움의 실체를 살펴볼 것이다.⁶⁾

이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민중’의 개념은 ‘노동자’, 그 중에서도 공장이라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블루컬러들만을 가리키는 제한된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던 경향이 두드러졌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로, 보다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의 수기를 아우르고자 했다. 노동자 중심의 민중논의에서 배제된 대표적인 이들인 농민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도시빈민들(남자주, 옛장수, 자영업자 등)의 글을 함께 살펴보았다.

- 6) ‘1970-80년대 민중의 글쓰기’에 해당하는 텍스트의 유형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당연히 그 양 또한 실로 엄청난 규모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텍스트를 분석하여 이 글에 담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다양한 유형의 수기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몇 편을 선정하여 논의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신동아』는 ‘논픽션 공모’ 제도를 통해 다양한 독자층의 수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체이며, 『대화』와 『새마을』은 각각 노동자와 농민들의 글이 실릴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공간이었다는 점에서 이 당시 민중들의 글을 살펴볼 때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매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잡지들에 실린 수기가 비교적 짧은 분량의 글이라면, 단행본으로 출판된 수기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특징일 것이다. 현재 단행본으로 접할 수 있는 민중들의 수기는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들의 것으로, 본고에서 살펴볼 장남수의 『빼앗긴 일터』,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석정남 『공장의 불빛』, 김진숙 『소금꽃나무』가 대표적인 노동자라며, 김기호의 『이제는 울지 않으련다』는 상대적으로 드문 농민수기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가난의 비정상화와 부끄러움의 강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기와 같은 민중들의 글은 대부분 성장소설과 유사한 이야기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성장소설은 한 마디로 주인공이 미성숙하고 불완전 상태를 자각하고 반성함으로써 성숙과 완성의 결말에 이르는 구조이다. 또한 대개 주인공이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움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고백이 전제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극복한 성장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수기들에서도 자신의 치부에 대한 솔직한 고백의 흔적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① 돈벌이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입은 극에 달할 정도로 작아 동생과 나의 육성희비는커녕 아침 때꺼리가 없어 국수를 사서 삶아 먹던 일, 보리쌀만 삶아 먹던 일, 그것조차 넉넉히 먹질 못해 기갈이 든 아이처럼 눈을 부라리며 먹을 것이 없나를 찾는 우리들이었다. <…> 그 때 난 저녁마다 안집 수돗가에서 보리쌀을 도말아 씻으며 여러 사람을 의식했는데, 한 집 이준마는 “저 집은 저녁마다 보리쌀을 저만큼 씻어 뭐하노”하며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얘기하는 것이었다. 정말 부끄러웠다. 엄마에겐 이젠 보리쌀 씻으려 안 간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였는지. 그렇지만 그 다음날 저녁엔 어김없이 난 그만큼의 보리쌀을 씻으려 갔다.

어려운 생활은 계속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 쌀 한 되 150원 하던 때 어느 날 아침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나니, 엽만 돈 100원을 주며 쌀집에 가 쌀 100원어치만 사오라는 것이다. 나의 작은 마음에도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심부름이었다.⁷⁾

7) 이민희,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pp.19-20.

②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하는 일없이 놀고 있는데 연무읍 시내에 있는 요꼬공장에서 사람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옆집 언니하고 이력서를 써가지고 읍내에 가다가 중학생 교복을 입고 있는 국민학교 동창을 보았다. 나는 내 모습을 훑터보았다. 다른 친구는 하얀 칼라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데 어린 나이로 이력서를 들고 공장으로 가는 내 모습이 초라하기만 했다. <...> 하루는 가게를 보고 있는데 한동네에 살던 영희가 교복을 입고 아버지하고 같이 물건을 사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얼른 숨었다. 한참을 숨어있다가 나오는 내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다.⁸⁾

③ 그 무렵 병주의 권유로 몇 동네 지나서 국민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엘 나갔다. 처음 교회문을 들어서던 날 ‘전도사’란 분이 인자하게 맞으시며 교복을 입은 병주에게 날 가리키며 동생이냐고 물어본다. 한 살 위인 병주가 유난히 작은 나이에 비해 훨씬 크기도 했지만 교복을 입은 병주 옆에 평복을 입고서 있는 내가 국민학생 같았던가 보다. 병주는 “아니예, 친굽니더”라고 얼른 대답했다. 예배가 끝난 후 서울에서 왔던 그 전도사는 “나는 학생들을 무척 좋아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길 바라요. 교회명도 학생교회로 고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얼굴이 굳어지는 걸 억지로 펴면서 밖으로 나왔다. <...> 그러나 솔직히 나는 주눅이 들어 있었다. 교복과 학생과, 학생 좋아하는 전도사와 현금통과 학교 얘기로 명랑한 분위기, 그것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얼마 후엔 교회 나가길 그만두었다.⁹⁾

④ 그 후 나는 그야말로 주경야독으로 공부에 파묻혔다. 낮에는 새벽부터 일을 하였고, 밤을 땀 때면 호미가 춤을 추었다. 남이 한이랑 하면 나는 허리가 아파도 두 배 세 배 일을 했다. 친구들이 중학교 모자를 쓸 때는 “그까저 저 내가 이긴다.”라고 자신 있어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이 고등학생 모자를 쓰고 ‘신라의 달밤’ 노래를 부를 때에는 기가 죽어버리곤 했다.¹⁰⁾

8)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2, p.20, 23.

9)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p.14.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수기의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치부라 여기고 부끄러움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다.¹¹⁾ 이들이 경험한 부끄러움의 감정은 가난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던 경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소외된 경우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교복을 입지 못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고,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과 그로 인해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결함이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개인이 반성하거나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과는 관계없이 가난은, 적어도 이 시대에서만큼은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끄러움의 감정이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되어 있는 정황은 다른 대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수기의 주인공들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또 다른 경우는 직업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경험할 때이다.

① 그 날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서려는데 정문에서 불량배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선뜻 내던진 한 마디에 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공순이 학생”, 어린 내 가슴은 쿵쿵 뛰었고, 온몸에 힘이 빠져 어떻게 기숙사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겠다.¹²⁾

② 처음에는 그 모든 것을 배우려는 의욕으로 열심히 다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욕은 자꾸만 멀리 멀어져 갔다.

10) 김기호, 『새마을 수기: 이제는 울지 않으련다』, 학문사, 2003, p.47.

11) “양심에 거리가져 불 낮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는 의미의 ‘부끄러움’과 “다른 사람들을 불 낮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뜻하는 ‘수치심’은 사전적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본문에서는 ‘부끄러움’이란 표현을 주로 사용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수치심’이라는 표현 역시 동일한 의미로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12) 임희순, 『작은 일은 작게』,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p.71.

민중, 노동자, 수업시간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자꾸만 그 수업이 하기 싫어졌다. 노동자라고 강학들이 우리들을 비웃는다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맴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노동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직업을 밝히기를 꺼렸다.¹³⁾

③ 제일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이 그 선생이라는 사람들이다. 홍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한다. 내가 보기에도 겉모습은 괜찮았고 말하는 품도 좀 배운 사람 같기도 했다. 명문대학을 다녔다는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은데 왜 그런 곳에 와 있을까.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에서 더구나 하는 일도 우리같이 천한 공장 애들이나 상대하는……쫓. <…> “우리는 남들이 다 알보는 공순이들인데 그까짓 법 같은 걸 배우는 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¹⁴⁾

④ 지금이나 가게라 하지 그 때만 해도 주막이라고 했어요. 젊으나 젊은 게 그 주막 소리만 들으면 사지가 떨려요. 아주 그 마을이 전부 저희 집안들인데, 조카라고 해도 좋고 아주머니라고 해도 좋을 텐데, 꼭 주막맥 주막맥 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나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굶어서 부항 날 때도 살았는데 인제는 이것만 가지면 우리가 잘 하면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만둬시다.”¹⁵⁾

어린 시절 부끄러움의 대상이 교복을 입지 못한 모습이었다면 돈을 벌기 위해 사회로 나와서 경험하는 또 다른 부끄러움은 직업적 차별에 따른 부끄러움이었다. 물론 이 또한 본질적으로 ‘가난’이라는 문제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펴본 부끄러움과 다르지 않다. 인용문④의 주인공은 가난

13) 김명숙, 『아학이 나에게 준 변화』,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p.77.

14)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p.22, 27.

15) 김정희, 『가난을 극복한 여장부』, 『새마을』 1976.11, p.84.

을 벗어나기 위해 어렵게 모은 장사 밑천으로 가게를 열지만 가난이나 노동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바로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농촌사회에서는 장사를 하는 것을 그다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고 그런 시선은 '주막떡'이라는 비하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당시 가장 많은 차별적 시선을 받았던 이들은 이른바 '공순이'로 불렸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여성노동자를 지칭하는 모욕적 용어인 '공순이'는 여대생, 중산층 주부 등과 대비되는 주변부의 타자적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항상 차별, 천시, 학대, 무시, 무식 등의 단어들과 함께 언급되었다.¹⁶⁾

모임을 하면 7명이 소그룹이면 똑같은 옷을 입어. 나 환장하겠드라우. 월급은 쥐꼬리만한데 월부로 맞춰요.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고쳐져. 한번은 이대에서 의식 있는 사회학과 교수들이 이대 학생들을 우리 인천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대 애들은 아무렇게나 입고 왔는데 (여성노동자들은) 너무 세련되고 그게 너무 화가 났더랬어.¹⁷⁾

공순이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월급의 몇 배씩 하는 돈을 치르면서까지 비싼 옷을 입고 여대생을 흉내내려한 여공들의 이런 행동 역시 노동자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대생이라는 다른 집단과의 비교뿐 아니라 작업장 내에서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① 어느 모로 보나 다방 레지의 자격이 없다. 손님들 무슨 말을 물어 보기도 하면 그저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데서 무엇보다도 애교

16)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가』, 이매진, 2006, p.543.

17) 위의 책, p.553.

가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은 웬지 꼭 마비된 것 같다. 멍청하고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면 커다란 실의에 빠지곤 한다. 그럴수록 나는 결심해 본다. 어디서라도 부끄럼을 타지 않는 일류 레지가 되어 보겠다. 어떠한 치욕이라도 참아 내겠다.¹⁸⁾

② “1분에 15개가 정상이에요. 15개를 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이나 틈틈이 연습을 해 봐요.” <…> 많이 이은 사람이 10개, 적게 이은 사람이 8개, 나는 기가 막혔다. 내가 생각해도 한심스럽구나, 남보다 더 잘하지는 못할망정 이걸 못해도 한참 밀바닥이니 어찌면 좋아.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양성공들은 실잇기 이외에도 걸음걸이 연습도 하였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1분에 140보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양성공들의 걸음마 연습은 바로 1분에 140보 걸기 연습인 것이다. 끊어진 실을 빠른 속도로 이어줄 것과 빨리 걸을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양성공들은 꽤 오랫동안 이 연습을 되풀이하여야만 하였다. 1분에 140보 걸음걸이 연습에서도 내가 제일 지도원의 신경을 쓰게 만들었으니 이것 참 자신의 우둔함을 나무랄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¹⁹⁾

인용문의 내용은 무능력과 저성과에 대한 부끄러움과 숙련된 노동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다. 물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갖는 본능적인 욕구다. 그러나 십대 중후반의 여성이 낮은 작업환경에서 처음부터 숙련된 모습을 보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기의 주인공은 스스로 자신의 무능력함과 저성과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한다. 심지어 다방 레지로서의 자격까지 운운하며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책하고 반성한다.

18) 석정남,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1976.11, p.200.

19)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pp.16-17.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개인적 잘못이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이런 정서가 많이 드러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계가 있다.

내가 남보다 더 노력해서 한번 잘살아보자는 자조정신, 또 남한테 의지하거나 의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을 가지고 잘살아보겠다는 자립정신, <...> 안 일어나는 부락은 그 부락민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입니다.(박정희 1971.9.29. 벼베기 대회 치사)

금년에는 작년에 성적이 나쁜 부락은 전부 낙제, 유급을 시키고 성적이 좋은 부락만 올려 이번 2차 년도에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부지런한 농민, 부지런하지 못한 농민, 알뜰한 부락과 게으른 부락의 차이를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박정희 1972.2.7. 지방 초도순시 후 경북도청에 서의 유시)

생존을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만이 최선이며, 가난은 전적으로 개인의 무능력과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박정희의 유시는 이 당시의 시대상을 정확하게 담고 있다. 가난은 부끄러워해야 할 비정상적 상태이며 개인의 무능력과 게으름에서 비롯되는 개인적 문제이고, 따라서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유시뿐 아니라 각종 정책과 제도, 언론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대의 지배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하면 된다'는 신념 아래 개인의 희생과 절제, 인내와 절약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한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이러한 시대정신이 압축된 상징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가난과 불평등의 문제마저도 개인의 의지와 정신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고 무한한 노력과 희생만을 요구했으며, 무엇보다 물질

적·심리적 보상체계를 활용해 성공한 이들만을 인정해줌으로써 가난을 더욱 문제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는 점에서 ‘부끄러움의 정치학’을 가장 잘 활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과 제도, 사회분위기의 기저에는 무한생존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전 사회를 통틀어 가장 낙인으로 가득 찬 생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빈곤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태하고, 부도덕하며 가치가 낮은 존재로 여겨지면서 일상적으로 기피당하는 존재가 되고 수치심을 겪는다. <…> 빈곤이 게으름이나 의지력 부족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프먼의 연구는 가난한 사람이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빈곤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낙인이 심해진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²⁰⁾

자본주의적 가치가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지배담론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70년대의 한국 사회에 ‘가난=비정상’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규범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회가 상정한 ‘이상적인 상태’는 재력과 출세, 성공이었고, 이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 가난과 낮은 학벌, 낮은 사회적 계급은 ‘비정상’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수치심의 대상이 되었다. 민중들의 수기는 그러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시간을 이겨내고 가난과 무능력함을 극복하여 더 나은 상태로 성장했음을 고백하고 인정받기 위한 글쓰기였던 것이다.

20) 위의 책, p.512.

Ⅲ. 동경의 대상으로서의 문학과 강요된 문학성

『공장의 불빛』, 『인간답게 살고 싶다』 등의 수기로 유명한 석정남은 자신의 일기에 “문학에 조예를 가진 벗을 갖고 싶은데 나의 주위에선 힘들어. 『한국문학』이란 월간지를 읽어야겠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한다.²¹⁾ 그리고 동료의 다락방에 빼곡히 꽂힌 한국문학전집을 보고는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여공 석정남은 문학에 조예를 가진 친구를 간절히 바라고, 또 문학에 목말라한다. 문학을 향한 열망과 동경은 석정남의 글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민중들의 수기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① 허물 벗는 가재처럼 고통스럽고 지저분한 현실을 잊고 어느새 환상의 나라를 퍼개 하는 아름다운 명시들, 하이네의 낭만시나 소월의 “진달래”, 운동주의 “별헤는 밤” 따위를 마주할 때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을 수가 있었다. 하이네의 “아름다운 어부의 딸이여, 내게로 오라. 머리를 내 가슴에 기대고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기울려 보자. 두려워 할 것은 없어” 하는 시속의 정경을 떠올릴 때나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언덕에 올라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하는 운동주의 “별 헤는 밤”을 생각할 때는 조장도 반장도 담임도 잊을 수가 있었고 실잇기도 걸음마도 별것이 아니었다.²²⁾

② 순정만화, 만화책, 『부활』, 『테스』 등의 책을 들고 다니며 나무 위에 걸터앉아 읽기도 하고 풀밭에 드러누워 하늘을 보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 나는 그와 생각이 잘 통한다고 느끼며 쉬지 않고 재잘댔다. 폴스또이의 『부활』을 얘기하고, 헤르만 헷세의 『데미안』을 얘기했다.²³⁾

21) 김원, 앞의 책, p.658.

22)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p.18.

23)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p.11, 35.

③ 그러나 나는 순간 도스토예프스키를 생각해냈다. 그렇지. 그는 사형 직전에 황제의 특사로 사형이 중지되고 대신 4년간의 유행을 받았다가 그후 병역근무 4년간으로 형이 바뀌었다지. 그리고 그 후 그는 건강한 몸으로 고역을 다 치른 후 한 사람의 병사가 되어 군에 복무하면서 소설을 쓰고 다시 귀족의 작위를 찾지 않았던가. <...>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군인 생활을 거쳐 포로, 투옥 등의 비참한 생활을 보내면서 옥중에서 그 유명한 돈키호테를 저술하였다지 않은가. 나는 그들을 스승으로 삼자. 지금의 나의 심정을 머리에 기억해두자. 그리고 살아남은 훗날 뭔가 인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료라도 제공하자.²⁴⁾

이들의 수기 곳곳에서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이름이 등장하는가 하면 하이네와 운동주의 시구절이 인용되기도 한다. 유명한 작가와 작품이 자주 거론되는 것은 이들이 문학작품을 많이 알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 차원을 넘어, 문학에 대한, 그리고 작가에 대한 이들의 동경과 열망이 얼마가 강했는가를 방증한다. 김소월과 하이네를 꿈꾸던 문학소녀 석정남은 실제로 시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그렇지만 늘 마음속에 동경해 오던 시인을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만은 뿌리칠 수 없었다. 연락이 되어 며칠 후 서울에서 시인을 만났다! 내가 생각하는 시인이란 우선 다른 사람보다 뭔가 다르고 고상하며 머리는 굽슬굽슬 길게 늘어뜨리고 눈은 썩 하면서 빛나야 하고- 대강 이런 것이 내가 상상하던 시인의 모습이었는데 내가 만난 그 분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30대의 아저씨였다. 저렇게 평범한 모습과 평범한 눈으로 어떻게 시를 쓸까, 믿어지지 않았다.²⁵⁾

24) 이철봉, 『사형수 풀리다』, 『신동아』 1970.10, pp.336-346.

25) 석정남,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p.54.

평범한 모습을 한 시인을 보는 순간 믿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문학소녀 석정남이 동경하는 문학은 특별한 것이었으며, 그런 문학을 하는 시인은 고상하고 빛이 나는 존재였다. 문학과 작가에 대한 존경과 관심은 이들을 이상화할 정도로 과잉된 수준이다. 오늘날 전태일 평전만큼이나 유명한 노동자수기인 『소금꽃나무』의 저자 김진숙 또한 이상, 김춘수, 김남조의 책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전태일 평전 ‘따위는’ 아무렇게나 취급했다고 회상하는가하면 제1회 전태일 문학상 수상자는 “시 쓰는 것이 무슨 특권인 양 괜히 어깨에 힘을 주곤 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²⁶⁾ 이렇듯 당시 많은 이들에게 문학은 단지 여러 읽을거리 중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선망의 대상이었다.

문학과 작가에 대한 동경과 이상화는 작가와 작품을 거론하거나 인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들을 흉내 내는 차원으로까지 발전한다.

① 한참 공상에 잠겨 있다가 햇살이 비쳐와서 고개를 들면 동쪽 하늘에 붉게 피어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맞은편 발뚎 사이에서 호박꽃과 박꽃이 빛난다. 막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가 없다. 그렇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완벽한 조화란 이런 걸 거다 하는 생각이 온통 내 가슴을 벅차오르게 한다. 아름다움이란 자연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나는 어린 시절의 생활을 통해 느꼈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아름다운 교류가 무언가에 의해 자꾸만 파괴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박꽃을 무척 좋아한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어 ‘시인이 되고 싶다’는 주제넘은 꿈을 꾸기도 했었다.²⁷⁾

26) 김진숙, 『소금꽃나무』, 후마니타스, 2007, pp.46-47;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 들은 어디로 갔을까」, 『역사비평』 2014.2, p.182.

27)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p.11.

② 나는 나의 책방을 나 혼자의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6평 남짓한 나의 공화국. 산적한 책더미 속으로 지나가면 준엄한 논조가 내 옷깃을 여미게 하고 때로는 영롱한 이슬방울의 신선함같은 것이 내 뺨 언저리에 어리는가 하며, 요정이 뛰노는 숲속의 빈터인 양 몽롱한 환상의 날개가 내 눈자위를 간질이곤 한다. 이런 나의 공화국을 넘나보는 침입자가 있다. 나의 침입자는 나의 공화국의 꽃과 석학을 빼앗아가지만 여간 의젓하고 자랑스럽지가 아니하며 나의 공화국을 탐하는 침입자를 나는 지극히 사랑한다. 나의 침입자는 막 잎새가 파랗게 돌아나는 싱그러운 수목들이다. 자라나는 수목과 수목들의 대화나 합창을 엿들으면 그 수목들이 나의 공화국 이상으로 나를 즐겁게 한다.²⁸⁾

③ 짙은 어둠으로 물을 들인 초가을 밤. 열려진 창문 사이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에 실려 왔을까. 하이얀 달이 가만가만 창치를 스치며 지나간다. 아직은 다 차지 않은 저 달이 활짝 웃을 때면 나는야 고향에 간다. 언제나 맘 속에 그려 오던 나의 가족들, 보기만 해도 정겨운 마을의 논과 밭, 투박한 사투리가 구수한 내 고향 시골마을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가게 되는 것이다. <...> 바람을 따라 달도 어디론지 가고 있다. 저 달이 다 차면 나는야 고향에 간다.²⁹⁾

④ 나는 갑자기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자 문득 센키비치의 『등대지기』에 나오는 스카빈스키처럼 무서운 고독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나 자신이 흡사 스카빈스키의 화신인양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졌다. <...> 아니 이 모순된 논리를 창조해 놓고도 모른 채 방관만 하는 조물주를 저주했다. 나는 문득 칸트가 말한 목적의 왕국이 생각났다. “지위가 높건 낮건, 재주가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저마다 떳떳한 인격으로 사람답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사회” 이것은 칸트가 역설한 유명한 목적의 왕국이다. 이 얼마나 인간이 열망하는 파라다이스요 억겁토록 누리고 싶은 유토피아인가.³⁰⁾

28) 공진석, 「고서주변」, 『신동아』 1977.9, p.400.

29) 작자 미상, 「달을 바라보며」,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pp.51-52.

뿐만 아니라 유명한 노동자수기인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과 장남수의 『빠앗긴 일터』 등은 “지식인이 쓴 글처럼 내용이나 스타일에서 매우 세련되”었으며, “대필 혹은 가필이나 외삽된 것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로 세련된 표현들”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내용만큼이나 세련된 표현과 스타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³¹⁾ 그러나 이렇게 화려한 미사여구와 다양한 문학적 수사, 유명한 저서의 인용은 사실 전체 글의 내용이나 주제의 성격, 글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심지어 지나치게 과장된 비유와 묘사, 상투적인 수사는 주제 전달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진부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렇게 어색하고 상투적인 문학적 표현의 차용은 문학 ‘흥내 내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열일곱의 신경숙이 컨베이어 위에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문학 흥내 내기일 것이다. 그렇게 문학을 흥내 내던 신경숙은 입버릇처럼 “나는 작가가 될 거야”라고 말하며 작가의 꿈을 키워간다. 문학을 정식으로 배워본 적도 없으며, 문학작품을 습작해본 경험도 없는 이들이 이렇게까지 문학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 이유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관심이나 욕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동시대에 발표된 많은 이들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문학에 대한 과할 정도의 동경과 의식, 흥내 내기 정황이 드러나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 특히 글쓰기 혹은 문학을 둘러싼 공간의 지배적 가치와 관습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부와 성공 등의 사회적 기준이 가난한 민중들을 주눅 들게 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 민중들의 글쓰기에서 내용적 차원에 가해진 억압이었다면, 민중들의 글쓰기를 형식적 차원에서 강제하고 규정한 지배적 가치

30) 강준희, 「나는 옛장수외다」, 『신동아』, 1966.10, pp.366-376.

31) 신병현, 「70년대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들과 노동자들의 글쓰기」, 『산업노동연구』 제12권 제1호, 2006, pp.207-210.

는 ‘문학성’이라 할 수 있다. 흔히 1970-80년대를 가리켜 ‘논픽션의 시대’라 평가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기에 논픽션이라는 장르가 새롭게 부상했음을 표현하기 위함일 뿐, 여전히 논픽션은 모호한 경계에 놓인 낮설고 불편한 장르의 글쓰기였다. 남성-엘리트-소설(픽션)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문학장에서 논픽션이 낮설고 불편한 타자의 것으로 배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다.³²⁾ “반미학적이고 반문화주의적인 요소들을 걸러내고 저항 일변도의 경직성과 도구적 문학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르포와 수기, 심지어는 전단과 벽보까지도 주변장르로서 문학에 수용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민중 논리는 자칫 문학의 저질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식의 의견이 당시 문학장 안팎에서 주류를 이루어왔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³³⁾

문학은 단순히 언어적·미적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행위이며, 어떤 텍스트에 가치를 부여해 문학작품으로 규정하는 과정 역시 미적 생산물을 사회적·계급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즉, ‘문학성’의 규정 역시, 초월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집단이 특정한 문학적 가치를 상정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제도화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⁴⁾ 모든 시대의 문학장은 이러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문학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며, 1970-80년대 한국의 문학장 역시 이러한

32) ‘문학장’이라는 용어는 피에르 부르디외의 개념이다. ‘장champ’은 다양한 입장이 구조화된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전문적인 집단 내부의 특수한 상징적 정당화 원리를 통한 ‘상징 자본’이 추구된다. 1970-80년대 한국의 문학장에서 독점적 권력을 점한 이들이 바로 ‘남성-엘리트-소설’로 상징되는 집단인 것이다. ‘문학장’ 개념에 대한 설명은 Pierre Bordieu, *Les regles de l'art*. (하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과 Pierre Bordieu, *Ce que parler veut dire*.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현택수 외, 『문화와 권력』(나남, 1998)을 참고하였다.

33) 『사설』, 『경향신문』, 1984.1.11; 천정환, 위의 글, p.243 재인용.

34) 라영균, 『문학장과 문학성』, 『외국문학연구』17, 2004, p.176.

원리로 구성되었다. 장(場)은 자율적인 규칙을 지닌 권력의 공간이며 “입장들이 구조화된 공간”이다.³⁵⁾ 1970-80년대 문학장 내에서 권력을 지니고 기득권을 가진 ‘입장’이란 과거 ‘순수문학’ 혹은 ‘고급문학’으로 불리는 좁은 의미의 문학 개념에 제한된 것이었다. 아름다움과 추함의 기준에 따라 문학과 비문학이 구분되었으며, 문학은 단순한 기호로 환원되지 않도록 고도의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했다.³⁶⁾ 문학장 내의 이런 논리와 권력 구조는 문학과 비문학의 지위를 엄격히 구분하고 문학성을 정상으로 규정하며 ‘좋은 글쓰기=문학적 글’이라는 아비투스를 형성했다. 문학성을 둘러싼 이러한 아비투스는 1970-80년대에 한창이던 논픽션의 생산 환경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중들의 글쓰기에도 영향을 미쳤다.³⁷⁾ 당시 대부분의 논픽션은 공모와 심사라는 전통적인 생산기제를 거쳐 활자화되고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심사위원 대부분이 문학장의 이러한 관습적 논리에 익숙한 기성 작가들이었다.

① 본래 논픽션이란 뜻 그대로 허구로 쓰여지는 소설따위와는 다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담담하게 기록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에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찌 하였거나 글이다. 글이란 우선 남이 읽어주어야 하고 읽

35) 이동연, 「계급, 주체, 취향: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문화연대』, 2001, p.12.

36) 라영균, 위의 글, pp.178-179.

37) 문학장 내 위계질서의 변혁은 작품의 물질적 생산 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생산, 유통, 수용 그리고 재생산 전반에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작가 및 여러 문학행위자들과 많은 제도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평론가, 문학사가, (출판)편집인, 후원가와 공준기구로서 아카데미, 문학단체, 문학살롱, 심사위원회 그리고 이에 관여할 수 있는 정부행정부서 등의 정치적, 행정적 제도를 들 수 있다. 또 여기에는 문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문학교사에서부터 문학작품을 하나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재생산에 기여하는 일련의 교육제도가 포함된다. (현택수, 『문학과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 1998, p.32)

히어야 한다. 자연히 소재가 흥미있어야 하며 표현력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박연희)

② 작가의 만만치 않은 문학적 역량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논픽션 스토리의 응모작품인데 거의 전편이 주관을 너무 많이 섞었고 또 설교조로 흐르는 경향도 있는 가운데 확실히 픽션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選外 『천사들의 무덤』이 있다. 選에는 들지 못했으나 재미있는 작품이다.(한무숙)

③그러나 다소 들뜬 문장과 산만한 구성이 눈에 거슬렸다. 다만 문장이나 구성이 너무 미끄럽고 짜인 때문에 논픽션다운 묵직한 박력을 경감시키고 있는 느낌이 든다. 문장은 어지러울 정도로 다채롭다. 내용(또는 사건)도 지나치게 나열되어 있다. 단순화한 문장, 간추린 내용의 매력이 이 필자가 이해했다면 훨씬 우수한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방기환)

이뿐 아니라 “이야기 솜씨가 만만치 않다”(박완서), “설득력 있는 표현력과 구성력”(김우중)등을 지적한 심사평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논픽션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소설이 아닌 산문 문학, 역사·수필·전기·기행문 따위이며, 또 문학적 작품에 있어서 전혀 픽션을 쓰지 않고, 報告·기록을 주로 하는 戰記物·기록 문학”³⁸⁾이라고 한다면, 논픽션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글쓴이의 체험과 사실에 기반한 내용의 진실성과 객관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픽션의 이러한 장르적 특성보다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주목해서 평가하는 부분은 이야기로서의 완성도, 즉 이야기의 재미와 구성, 문장력과 표현력 등이다. 그리고 소재가 주는 신선함이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 주제의 가치보다는 이야기로서의 재미와 감동을 요구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요구하는 좋은 글은 한 마디로 문학성을 갖춘 글인

38) 민병덕, 『논픽션과 韓國讀者의 意識』, 『한국출판학연구』3, 1970.2, p.60.

것이다. 아마추어들의 글쓰기가 공모와 심사라는 생산기제를 통과해 기성의 문학장 내에 진입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사 기준과 평가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통적인 문학성을 기반으로 한 심사위원들의 이러한 평가기준은 글쓰기를 시도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이런 규범이 공고하게 작용하고 요구될수록 문학적 소양을 갖추지 못했거나 예술적·미학적 글쓰기에 서툰 이들은 자신들의 글에 대해 열등감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갖게 된다.

① 오늘은 하루 종일 시를 썼다. 헬만 헤세, 하이네, 윌리엄 워드워드, 바이런, 괴테, 푸쉬킨. 이 얼마나 훌륭한 이들의 이름인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그들은 훌륭하다. 아, 나도 그들의 이름 틈에 끼고 싶다. 비록 화려한 영광을 받지 못할지라도 함께 걷고 싶다. <...> 감히 내가 저 위대한 이들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니. 이거야말로 짐승이 웃고 저 하늘의 별이 웃을 것을 모르고…… 아무 지식도 배움도 없는 나는 도저히 그런 영광을 가질 수 없다. 이대로 그날 그날 천천히 밥이나 처먹으면서 사는 거지. 그리고 끝내 돼지같이 죽는거야.³⁹⁾

②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아니다. <...> 원고지를 쓰는 법은 이렇고, 편지를 쓸 때는 상대방의 안부를 먼저 묻고, 그날의 기후를 쓰고 어찌고 하는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내가 배운 작문 교육의 전부다. 그런 내가 지금껏 썼던 글들은 원고지에 쓸 수가 없는 글이었다.⁴⁰⁾

문학성을 갖춘 글을 좋은 글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에 걸맞은 학력과 지식, 교양을 갖추지 못한 이들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글을 열등

39) 석정남,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1976.11, p.188.

40) 김진숙, 앞의 책, pp.7-8.

한 존재로 여기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헤르만 헤세, 하이네, 윌리엄 워드스워드, 바이런, 괴테, 푸쉬킨을 동경하던 소녀는 과연 이들의 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했을까. 여공 김진숙은 이상과 김춘수의 책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전태일 평전은 아무렇게나 취급했고, 이후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한 어느 노동자는 시 쓰는 것을 대단한 특권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과연 문학을 향한 이들의 동경을 온전히 그들 개인의 감상과 사고의 결과로만 볼 수 있을까. 또한 민중들의 글이 지식인 작가에 의해 윤색, 편집되고 심지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지식인 작가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빈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기록한 『어둠의 자식들』⁴¹⁾은 분명 체험수기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이동철 구술, 황석영 정리’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저자가 불분명하며,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 역시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상태에서 지식인의 권유에 의해 쓰게 되었으며, 제목과 지면의 편집 역시 유동우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⁴²⁾

당시 민중들의 글쓰기를 둘러싸고 펼쳐졌던 이러한 상황들은 민중들이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엄격한 규율이 작용하고

41) 1980년에 출판된 『어둠의 자식들』은 황석영 작(作)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저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구술과 기록, 정리, 그리고 가필의 과정 등 여러 단계의 창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작품이기에 저자를 확정하는 것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황석영은 『작자의 말』에서 ‘이동철 구술, 황석영 정리’로 밝히고 있으며, 1980년 첫 출간에서는 책의 저자로 황석영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만 이후 1983년 판에는 이동철이 저자로 명기되어 있다. 이동철은 이후 인터뷰에서 구술이 아니라 자신의 수기를 황석영에게 넘겼으며 출간이후에는 본인의 명의로 출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동철 역시 황석영의 가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30%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8, pp.372-374 참조)

42) 유동우·김원, 『대담: 돌맹이는 아직도 외친다』, 『실천문학』 110호, 2013 여름 참조.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이 바로 지식인 중심의 문단·출판권력이 구축해 놓은 '문학(성)'이라는 고상한 잣대인 것이다. 민중들의 수기를 문학의 범주로 볼 것을 주장하는 1970-80년대의 민중·민족문학론조차 민중들의 글에 '예술적 세련'을 요구한다. “정치적이면서도 형식적·문학적으로 훌륭한 문학”⁴³⁾이기를 요구하는 소위 엘리트 문학가들의 이데올로기와 욕망이 민중들과 그들의 글쓰기에도 투영되고 강제되는 것이다. 문학장의 이런 요구와 평가기준은 문학장 내에서 그치지 않고 문학장 밖으로까지 확장되어 당시 사회 전반에서 문학성을 강조한 글쓰기 윤리가 공고하게 작용하게 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민중들은 어렵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공간에서조차 문학적 소양을 자랑하고 문학적 표현을 흉내 내야 했으며, 예술적 세련미가 부족한 자신의 글을 부끄러워해야만 했다.

IV. 나오며

부끄러움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가치 없고 형편없게 보인다는 인식과 관련되는데, 이는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⁴⁴⁾ 즉, 부끄러움은 관계적 반응이자 사회적 구성물인 것이다. 마사 너스바움은 “각각의 사회는 수치심을 다르게 경험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함으로써 이 감정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어

43) 천정환, 앞의 글, p.201.

44) Paivio, S. C., & Greenberg, L. S.,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1997; 김명찬, 「관계적 질병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치료」, 『인간.환경.미래』 16, 2016.4, p.66.

면 사회에서든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른바 부끄러움(수치심)의 사회학을 펼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부끄러움이란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응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이때의 ‘이상적인 상태’란 그 사회의 합의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⁴⁵⁾

실제로 모든 사회는 혐오와 마찬가지로 수치심을 통해 특정한 집단과 개인을 선택하고, 그들을 ‘비정상’으로 구별하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에 대해 부끄러워하게 한다.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이는 사람들은 수치심을 얼굴에 달고 다닌다. 말하자면 정상인과 함께 있을 때 부끄러움을 보여야 한다고 날마다 사회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드러나 보이는 낙인이 없으면 사회는 문신과 소인 아니면 사회적 배척과 비난을 보여주는, 눈에 띄는 표시를 즉각 부과한다.⁴⁶⁾

‘이상적인 상태’ 혹은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특정한 가치나 상태 혹은 인간형을 규정해두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부끄러움(수치심)이 형성되고 운용되는 메커니즘이다. 이렇듯 부끄러움은 “완전해지고 완전한 통제력을 지니려는 원초적 욕구”⁴⁷⁾와도 관계된 것이기에, 부끄러움은 곧 비정상 혹은 불충분의 상태에서 벗어나 이상적이고 완전한 ‘정상’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과 그것을 이용해 사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정치·사회적 요구와 연결된다. 특히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부끄러움이 “지배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을 예측시키고 낙인찍는 사회적 행위 양식과 연결”되는 속성에

45) Martha C.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pp.338-340.)

46) 위의 책, p.319.

47) 위의 책, p.378.

착안해, 지배 집단은 “‘정상’이라는 편안함을 안겨 주는 허구를 통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지닌 불안을 숨기”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는 데 부끄러움의 메커니즘을 활용한다.⁴⁸⁾

어느 사회에서든 이러한 부끄러움의 메커니즘이 적용되는 대상은 정치·경제·문화적 약자들이며, 1970-80년대 한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측과 통제와 주요 대상은 이른바 민중으로 지칭되는 정치·경제·문화적 약자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글에서 부끄러움의 감정을 쉽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가난을 개인의 무능과 나태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생존경쟁 구도를 정당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지배 담론은 가난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하여 수기의 내용을 이루는 주인공들의 의식과 태도를 규정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술성을 갖춘 문학적 글쓰기를 좋은 글쓰기의 표본이라 규정했던 문학장의 지배 담론이 미학성이 낮은 글을 열등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느끼게 하면서 수기의 형식적 측면에 제약을 가했다.

글쓰기 행위 역시 사회적 산물이며,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글은 당대의 제도와 지배담론, 관습화된 규범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근대의 모든 텍스트는 국가-자본(편집자)-작가(개인)의 협상과 갈등의 산물”이라는 명제는 프로 작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⁴⁹⁾ 그러나 국가와 시장(자본)의 힘이 커지고, “시장과 국가라는 막강하고 근원적이고도 대결 불가능해 보이는 막강한 힘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조율”⁵⁰⁾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글쓴이 개인의 목소리는 줄어들게 마련인데, 특히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된 계층의 이들에게는 국가와 시장이 가하

48) 위의 책, p.603.

49) 천정환, 앞의 글, p.245.

50) 같은 곳.

는 구속과 강제의 강도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온전히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사회적 하층계급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70-80년대 민중들의 글쓰기는 그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았다는 점에서 분명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이런 그들의 글(쓰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당시 사회에서 권력화된 지배적 가치가 강요하는 논리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이들이 느낀 부끄러움의 감정이다. 당시 민중들의 글(쓰기)은 자신들의 의지나 선택과는 무관한 채 단지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소외된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끄러움의 감정을 강요받았던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당시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지배적 가치를 강화하고 권력을 공고히 해나가는 부끄러움의 정치학은 비단 1970-80년대만의 예외적 현상은 아닐 것이다.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강요하는 이러한 방식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격과 품위마저 훼손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지배의 방식 보다 더욱 문제적이고 위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움은 다른 시대의 글쓰기에서도 주목해봐야 할 중요한 상징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준희, 『나는 옛장수외다』, 『신동아』, 1966.10.
공진석, 『고서 주변』, 『신동아』 1977.9.
김경숙 외,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우리가 아니다』, 돌베개, 1986.
김기호, 『새마을 수기: 이제는 울지 않으련다』, 학문사, 2003.
김정희, 『가난을 극복한 여장부』, 『새마을』 1976.11.
김진숙, 『소금꽃나무』, 후마니타스, 2007.
석정남, 『인간답게 살고 싶다』, 『대화』, 1976.11.
_____, 『공장의 불빛』, 일월서각, 1984.
송효순, 『서울로 가는 길』, 형성사, 1982.
이칠봉, 『사형수 풀리다』, 『신동아』 1970.10.
장남수,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1984.

2. 논문 및 단행본

- 김명찬, 『관계적 질병으로서 수치심의 이해와 치료』, 『인간. 환경. 미래』 16, 2016.4.
김성환, 『『어둠의 자식들』과 1970년대 하층민 글쓰기의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4, 2011.8.
김원,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의』, 이매진, 2006.
라영균, 『문학장과 문학성』, 『외국문학연구』 17, 2004,
민병덕, 『논픽션과 韓國讀者의 意識』, 『한국출판학연구』 3, 1970.2.
신병현, 『70년대 지배적인 담론구성체들과 노동자들의 글쓰기』, 『산업노동연구』 제12권 제1호, 2006.
유동우 · 김원, 『대담: 돌맹이는 아직도 외친다』, 『실천문학』 110호, 2013 여름.
이동연, 『계급, 주체, 취향: 부르디외의 구별짓기』, 『문화연대』 2001.
이은미,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 자전적 쓰기의 활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 8(4), 2014.8,
천정환, 『그 많던 '외치는 돌맹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역사비평』 2014.2.
현택수, 『문학과 권력: 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나남, 1998.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과 대중의 국민화』, 윤해동 외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 1』, 역사비평사, 2006.

Martha C.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Mikhail Bakhtin,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2001.(김희숙·박종소 옮김, 『말의 미학』, 길, 2006)

Paivio, S. C., & Greenberg, L. S.,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1997.

Pierre Bourdieu, *Les regles de l'art*.(하태환 옮김, 『예술의 규칙』, 동문선, 1999)

Pierre Bourdieu, *Ce que parler veut dire*. (정일준 옮김,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새물결, 1995)

Abstract

People's writing in the 1970-1980s
and Politics of shame

Kim, Kyung-min

No matter where we are, in order to hide the dominant group's anxiety and also to strengthen their ideology, it is so natural to operate the mechanism of shame to define the subject of shame and then to take it as social norms. Therefore, the subject of shame shows the hidden desires of the society. This study understood the empowered dominant values and ideologies in society of the time through the emotion of shame shown in people's writings in the 1970-1980. The background of shame shown in people's writings of the time could be largely divided into two aspects such as the dominant discourse aiming to justify the struggle for existence and also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by laying the blame on individuals' incompetence and indolence for poverty, which makes people feel shame at poverty, and another dominant discourse of literary genre that has defined the literary writing equipped with artistry as a sample of good writing, which makes people feel shame at writings with low aesthetics as they have not received professional literary education. As this shame is an important symbol showing the naked face of dominant group of the time to strengthen their own beneficial values by defining people as abnormal or inferior beings, it could be one of the essential signs for understanding society of the time.

Key Word : Autobiographical Writing, People, Shame, Poverty, Literary Value

김경민

소속 : 대구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

전자우편 : redwine61@hanmail.net

이 논문은 2017년 4월 29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